

충주중친회 총제공 묘소 관통하는 충북선 노선변경 요구 투쟁



시위도중 길에서 총제공 묘소를 향해 고유제를 지내고 있다.



식발식

충주중친회(회장 권오협) 회원들은 지난 9월 28일 충북선 고속화사업 공사 현장 노상에서 총제공 묘소를 향해 고유제를 지냈다. 충북선 고속화사업 계획대로 개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노선이 총제공(德制公, 踐踐, 17世, 추밀공파) 묘소를 가로지르기 때문이다.

충주중친회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시민들과 함께 충북선 고속화사업으로 새로 개설되는 노선은 교각을 설치하기 때문에 충주시를 반토막 낼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시청 앞 광장까지 상여를 메고 시위를 벌였다. 이어 식발식을 거행하며 반

대의지를 거듭 밝혔다. 권오협 충북선 고속화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인터뷰에서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철도가 열심자로 광명산을 관통해서 지금 고유제를 지낸 총제공 할아버지 산소를 치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 입장에서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명성기, 박희범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과 권영정 비상대책위원회 고문 그리고 김영석 칠금·금릉 자치위원장도 현장에서 현행 충북선 고속화 노선은 충주의 백년대계를 망친다며 대체 노선을 제시하며 충주시에 노선을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편집국장 권행만

권영식 의원 영등포구 장학재단에 장학금 3천만원 기탁

권영식 의원은 영등포구의회 부의장을 지내며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역구:신길4동, 신길5동,신길7동) 3선 의원이다.

권영식의원과 부인 김경숙씨는 지난 9월 6일 영등포구청을 방문해 장학금으로 3,000만원을 영등포구 장학재단에 기탁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손수 실천하여 구민들에게 귀감이 됐다. 이번 기탁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을 잇게 해주고 영등포를 이끌어 나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의 동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권영식 의원은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세계를 리더 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인 우리들의 몫”이라며 기성세대의 책임론을 강하게 말하면서 나 한사람의 작은 실행이 기부를 쉽게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행결정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도 전했다. 아울러 관내 기업과 지역사회가 청소년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동참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권영식의원은 영등포는 서울의 3대 도심이며 서남권의 중가로써 이름에 걸맞는 지위를 찾아야 한다며 영등포의 변화와 발전에 강한 의욕을 비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많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길4·5·7동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은 민주평통통자문화의 영등포구협의회 지회장을 역임했고 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영등포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제6대~제8대까지의 3선 의원의 경험을 통해 민원해결사라는 칭호와 함께 주민과는 뛰어난 친화력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여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 능동재사 방문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 협의회는 지난 10월11일 오전 9시부터 도청회의실에서 대륙별 회장단회를 개최하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2시경 행정부지사의 안내를 받아 김근한(필립핀 마닐라 주재) 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자문위원들과 통상산업과 직원 10여명이 안동 능동재사를 방문하여 권오의 사무국장의 재사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시조 묘소와 남종공 단소를 참배한 후 3시 30분에

다음 방문지인 봉정사로 향해 떠났다.

해외자문위원 협의회는 경상북도 출신으로 해외에서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현지 교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후진들의 해외진출과 현지 기업연계 인턴사업을 확대하면서 해외 경북도 인재들의 활동기반을 구축하고 도정의 전략사업과 도정홍보를 강화하데 목적을 둔 자문기구이다.

사무국장 권오의

권찬호 교수 상명대 서울캠퍼스 교학부총장 취임

권찬호 교수가 상명대 서울캠퍼스 교학부총장 겸 대학혁신위원회 교육혁신 원장에 취임했다. 권찬호 부총장은 2018년 2월 상명대 제22대 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중앙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정치학 석사), 중앙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



년까지 시애틀총영사를 역임했다.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신기마을을 출신이다.

문한 이후 1999년부터 청와대에 근무했으며, 2004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을 거쳐 2006년부터 2008

동 정

▲권장현 제22대 서부지방산림청장이 취임했다. 권 청장은 경남 함천 출신으로 1990년 1월 공직에 입문해 산림청 법무감, 사담담당, 산림환경보호과장, 서울국유림관리소장, 보은국유림관리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평소 소신과 역량으로 산림행정과 현장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 있다. 권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서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 여건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 및 임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권혁중 글로벌뉴스통신 대표(경영학 박사)가 지난 10월 1일 국가품질명장 협회에서 국가품질명예명장으로 위촉되었다.

글로벌뉴스통신은 네트워크를 통한 융합 매체로 보편지향적인 뉴스 리더로서 특히 품질경영혁신을 위해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동기부여하는 인터넷 뉴스로 인정받았다. 권혁중 대표는 김포대학교 산학협력 교수이며,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4차 산업혁명 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저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가정신과 창업(2020.2 공저, 교학사), 4차 산업혁명의 이해(2020.2 공저, 일진사) 등이 있다.

▲제23대 권기락 화랑교육원 원장이 9.1.(수) 취임했다. 권기락 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사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체육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왜관중학교에서 교직에 들어선 후 경북체육고등학교 교감, 김천·영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관, 영천고등학교 및 포항 이동중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권인성 법무법인 해강 대표변호사가 유암코(연할자산관리) 상임감사에 내정됐다. 권 변호사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 대신

고등학교 및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된 후 법무법인 해람, 국제법률사무소 선린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이화언어심리연구소 연구소에 장애인 및 아동안련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해강은 전라북도 익산 소재로 민·형·가사 뿐만 아니라 석산·석재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진폐증이나 소음성 난청 등의 피해를 겪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권태형 강원도 원주의료원장이 제16대 의료원장으로 연임됐다. 지난 2018년 제15대 원주의료원장에 취임한 후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28일 제16대의료원장에 취임했다. 권 원장은 임기 중 원주의료원 신·증축사업 추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사업 선정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등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3주기 의료기관인증 획득으로 인한 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 지역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권순옥) 권태민 신임 상임이사가 17일 취임했다. 권태민 상임이사는 1977년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하청명장, 산림녹지과장, 주민생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2017년 퇴임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상임이사로 2020년부터 재직해 온 바 있다. 신임 권태민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4년 9월까지다.

▲권혁모 시인(가운데)이 10월 22일 오전 10시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주관하는 ‘제3회 영축문학상 시상식’에서 시조부문 ‘산문(山門)이 그리운 날’로 영축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영축문학상은 전국 문인들이 오직 통도사를 주제로 쓴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 사무실과 원룸 임대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의 사무실과 원룸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여 안내하오니 입주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대종회에 소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관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용두동 102-196)

※ 제기동역 6번 출구 바로 앞 (교통 편리합니다)

◎ 연 락 처 :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 회관 공실 임대 안내

임대할 부분	면적	보증금	월임대료
사무실 201호	30㎡ (약 9평)	1천만원	70만원
원룸 306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1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2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3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4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6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옥탑방	18㎡ (약 5평)	3백만원	50만원

안동권씨 대종회